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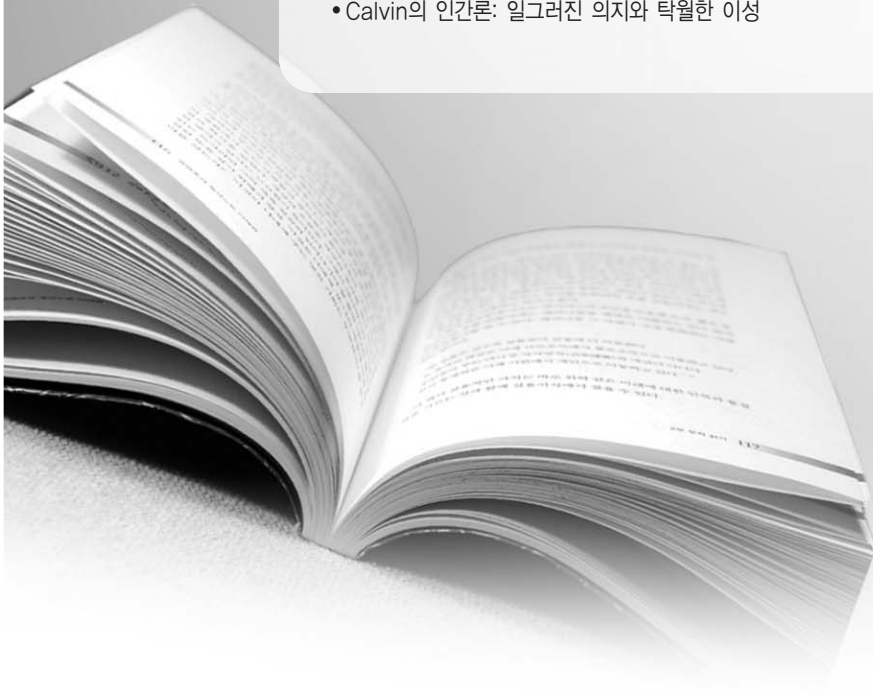
자유 논문

■ 김수연(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은혜의 심리학: 거듭난 심령의 성장 질서

■ 이재성(고려신학대학원)

- Calvin의 인간론: 일그러진 의지와 탁월한 이성



은혜의 심리학: 거듭난 심령의 성장 질서

김 수 연*

국문초록

은혜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의 전제 아래, 인간의 심리적 인격적 영적인 측면에서 전 생애에 걸친 성장의 원리를 개괄하였다. 이에 Erik Erikson의 전 생애에 걸친 인성발달론의 구도 속에서 William W. Meissner의 은혜의 내적 선물로서 주어지는 인격 특성론 및 James E. Loder의 이중부정이라는 영의 역동적 논리를 이론적 기초로 삼았다. 거듭난 심령의 성장에 있어서 제기되는 핵심주제들을 전 생애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바, 내적 성장의 위기들, 위기극복의 과정, 이를 도우시는 은혜의 내용 및 변화역동, 성장의 열매, 나아가 삶의 과제에 책임 있게 반응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병리 등으로 구조화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내적 성장의 질서에 대한 개괄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고백함으로써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안 내하는 인생지도(life map)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중심단어 : 통합적 영성, 자연과 초월, 은혜의 심리학, 점성원리, 이중부정의 질적 변형논리

I. 여는 글

교회 내에 거듭남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던 시절이 있었다. 거듭남의 증거로 눈에 보이는 열심이 신앙의 기준이 되던 시절,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

• 논문 투고일: 2009년 3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5월 11일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09년 4월 23일

냐의 행위(doing)의 문제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 내 제자훈련 등의 양육과정이 융성해지면서, 거듭남이라는 출생의 문제는 성장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에 성장을 가능하는 지표로, 일상적 삶과 인간관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신앙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 이제 신앙은 행위를 넘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존재(being)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상적 삶과 인간관계에서 우리나를 신앙은 심성과 덕성이 통합된 영성으로 모종의 총체적 경지, 곧 하나님의 성품(벧후1:4-7; 고전13:4-7)을 요구한다.

본고에서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벧후3:18)에 있어서 심성과 덕성 및 영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에 반응하는 영성은 심성과 덕성의 자연적 성장과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연구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심성과 덕성의 자연적 성장과정을 심리학적 발달이론을 통하여 먼저 규명하고 이 구도 속에서 은혜의 효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조건(출생, 양육, 결혼, 노화, 죽음 등)에서 말미암는 내적 위기의 특성과 성장과제, 성장 정체로 인한 병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내적 인격적 특성 등을 인생시기별로 나누어 알아보 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은혜의 신학

은혜의 신학은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내적 과정을 기술하고자 하는 심리학을 통제하는 상위학문이다.¹⁾ 따라서 은혜의 작용과정을 심리학적으로

1) 김수연,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막힌 담, 그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창간호(2003): 154.

기술하기에 앞서서 은혜에 대한 신학적 전제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은혜란 인간의 심령 안에서 성령을 매개로 베풀어지는 구원 적용의 사역으로 이해된다. 특히 성화의 사역에 있어서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가 기도와 말씀, 성례, 섭리적 인도하심 및 인간의 합리적 지성을 사용하여 능동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신다.²⁾ 이러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됨 없이 기꺼이 수행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합에 기인한다. 즉,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먼저 소원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빌2:12-13).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인간의 심령에 소원의 형태로 작용함으로써 구원 적용의 동인이 된다.³⁾ 따라서 인간은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협력하는 특권을 얻는다.

성령의 특별 은혜에 의한 구원의 효력은 인간의 본성 전체를 갱신함으로써 영적인 열매로 나타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며 심령 안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한다.⁴⁾ 이와 같은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는 점차 크게 자라가는 점진적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은혜가 자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심령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요일3:9)로 말미암음이며, 씨는 자라는 것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은혜로 인한 성장은 균형적이며 총체적인 양상을 지닌다. 균형적이며 총체적인 성장은 마음에 자리 잡은 '영적 구조'의 강건함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구조적 강건함'은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 핵심 성장지표

2) Louis Berkof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672-73, 786-87.

3) Anthony A. Hoekema, *Saved by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0), 49-80.

4) Berkof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683.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된다.⁵⁾

2. 은혜의 심리학

은혜의 심리학을 전개하기 위한 상기 신학적 전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첫째, 은혜는 인간의 심령에 소원의 형태로 직접 작용한다. 둘째, 그 결과 도덕적인 인격의 특성(덕성)으로 나타난다. 셋째, 이러한 도덕적 인격의 근간에는 강건한 심령의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바, 균형적이며 총체적인 성장양상을 지닌다. 따라서 은혜의 심리학은 인간의 성숙에 있어서 심리적, 도덕적, 영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은혜의 심리학은 그 주제와 전개 방법에 있어서 신학과 구별된다. 신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내용을 계시에 의존해 다루는 반면, 심리학은 인간의 관점에서 내면과정을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 다룬다. 따라서 은혜의 심리학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 편에서 은혜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차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 편에서 보면, 은혜는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각하는 일로 나타난다. 이 순간부터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궁극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계시적 초월적 차원에서 조명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자각함으로써 인생여정에 있어서 새로운 영적 방향성을 부여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을 통하여 동기화된다.⁶⁾ 따라서 은혜 심리학의 과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 인생여정에서 부딪히는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러한 해석 변화가 심성과 덕성에 기여하는 바를 밝히는

5) Thomas Watson, *A Body of Divinity*, 이훈영 역, 『신학의 체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481-492.

6) Daniel J. Louw, *A Mature Faith* (Leuven, Belgium: Peeters, 1999), 5, 47, 95, 105.

데 집중된다.

은혜의 작용과 효과를 기술하는 심리학을 전개하는 다양한 움직임 가운데, 초월적 은혜와 자연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정하는 입장과 불연속성을 가정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진다. 본고에서는 은혜와 자연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William W. Meissner의 입장, 그리고 불연속적인 질적 변형을 강조하는 James E. Loder의 입장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자연과 초월 사이의 연속성을 가정하는 Meissner는 초월적 은혜가 자연적 덕성을 오히려 온전케 한다는 관점("Grace perfects mature.")에서 은혜의 심리학을 전개하고 있다.⁷⁾ 반면 Loder는 초월적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자연적 덕성을 부정함(negation)으로써 얻어지는 '질적' 변형(transformation), 곧 회심의 순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Loder의 입장이 자연적 덕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닌 바, Loder의 부정은 이중부정(double negation)의 변증법적 논리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Loder의 이중부정은 인간이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집짓 '부정' 함으로써 애써 성취한 자연덕성을 다시금 '부정'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 부정' 이라는 이중부정은 더 큰 긍정을 낳는 바, 자연적 덕성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통합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된다.⁸⁾

은혜와 자연의 관계를 설정하는 논리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결론은,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연 본성(=인성)의 발달에 새로운 잠재 가능성을 부여하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이다.

인성의 온전함(wholeness)은 그 통합성(integrity)과 응집성(coherency)을 의미하는 바,⁹⁾ 은혜 안에서 자라고 있는 핵심 성장지표 가운데 하나인 강건

7) William W. and Meissner, S.J., *Foundations for a Psychology of Grace* (New Jersey: Paulist Press, 1966), 8-9.

8) James E.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81-95, 110, 140.

9) Erik H.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1985), 64-65.

한 심령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건한 심령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은혜 안에서의 점진적 성장의 질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초월적 은혜가 자연적 심리과정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내는 효력을 규명하되, 전 생애에 걸친 발달 질서 속에서 한 사람의 심령이 조형되어가는 과정을 그 맥락으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Meissner의 은혜-자연의 연속성 논리 및 Loder의 이중부정의 질적 변형의 논리에 따라, 전 생애 발달의 각 단계마다 작용하는 은혜의 효과가 어떻게 달리 조명되는지 비교해 보고자 한다.

3. 거듭난 심령의 성장 목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성장은 먼저 신체적, 심리적, 영적 측면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체와 더불어 심과 영을 구별하되, 분리시키지 않고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준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정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골2:9)으로서, 인간의 성장과정을 몸소 겪으시면서 인성의 실재성을 보여주셨다.¹⁰⁾ 따라서 신성과 인성이 그 완벽한 형태로 내재된 존재에게서 나타나는 성장 과정의 특징은, '자연법칙에 순종하면서도 유전이나 후천적 결합 등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과정이었다. 또한 인간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 성장과정이었다. 인간적인 자연본성의 발달과정에 따라 성장하시면서도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삶의 매 단계마다 온갖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성장과정이었다'¹¹⁾ 이러한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정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거듭난 새로운 영적 존재의 성장에 있어서 방향과 기

10) Berkoff,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547.

11) Norval Geldenhuy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Luke*, vol. 1, 이장립 역, 『성경주석 뉴인터내셔널: 누가복음(상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134, 142.

준이 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과정에 대하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¹²⁾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눅2:40)” 그리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2:52)”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장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신체발달, 심령의 강함, 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 및 사람에게 베푸는 돌봄과 사랑이라는 특성들로 기술되고 있다.

요약하면, 거듭난 심령의 성장 좌표가 되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자연본성(=인성)의 발달과정을 겪으면서 온갖 성장 위기(눅2:7; 3:41-51; 4:1-13; 9:22; 22:42; 마8:20; 막15:34) 속에서도 은혜의 작용으로 심령의 강함을 유지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늘 일치하여 왜곡되거나 부패되거나 약해지지 않고,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셨다. 여기서 심령의 강함, 지혜, 그리고 사랑은 거듭난 심령이 은혜에 의지하여 자라가야 할 목표로서의 인격적 가치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격적 가치들이 내적으로 빚어지기까지 어떠한 위기와 그 극복의 과정을 겪어나가는지, 이하 인성 발달의 기본 구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한다.

4. 인성 발달의 기본구도

인성 발달의 기본구도로 본고에서는 Erik. H. Erikson의 이론을 다음 두 가지 근거에서 인용하고자 한다. 첫째, Erikson의 발달이론은 은혜의 작용과 효과를 살펴보기에 유리한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즉, Erikson의 발달이론의 기본구도 속에서 인생은, 시기별 삶의 조건이 변화함으로 말미암는 갈등과

12) Geldenhuy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Luke*, vol. 1, 136. ‘강하여짐’은 신체적 성장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세례요한의 성장 특징으로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눅1:80)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성장의 주요특징으로 심령의 강함을 첨가한다면 성장 지표의 내용을 더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위기들이 운명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이러한 갈등과 위기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변화와 성장을 요구하는 삶의 과제로서 제기된다. 삶의 성장과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¹³⁾ 여기서 위협과 전환의 갈림길은 은혜의 효력을 조망하기에 유리한 지점을 제공한다. 둘째, Erikson의 발달이론은 갈등과 위기의 극복을 통해 형성되는 내면의 힘, 곧 인격적 가치를 지닌 덕성(virtue)들 사이의 연쇄적이며 누적적인 성장 질서(=점성원리, epigenetic principle)를 제시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성장 질서의 기본구도(ground plan)는 인격적 가치들(= 은혜의 성령의 열매들) 사이의 내적 연결고리를 이해하기에 유리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점성원리는 인생의 발달단계 중 어떤 시점이던지, 회심하여 거듭난 시점에서 8가지 단계의 기본구도의 누적층(씨와 같은 사전형태, 원래형태, 사후형태 등)을 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거듭난 심령에 작용하는 은혜에 의한 회복과 성장의 질서를 조망하기에 유리한 틀을 제공한다.

이하 Erikson의 인성 발달이론이 제시하는 바, ①삶의 조건에서 말미암는 위기의 특성, ②위기극복의 심리적 과정, ③위기극복의 결과로 형성되는 내면의 힘(=덕성), ④위기극복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위기에 내재된 삶의 과제에 책임 있게 반응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병리적인 심리특성, ⑤부정적 인격가치(=악덕) 등의 5가지 요소를 인생의 시기별로 나누어 먼저 개괄해 보고자 한다.

1) 영아기

모체의 공생적 환경에서 분리된 영아는 생존양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영아는 이제 자신의 모든 감각기관 동원하여 새로운 인생에 적응해야 한다. 영아는 입을 통해 '받아들이는' 생래적 능력과 작고 연약함에서 받

13) Erik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1959, 1980), 57.

14)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53.

산하는 ‘매달리는’ 매력을 무기로, ‘공급해 주는’ 어머니(또는 양육자)와의 관계에 진입한다. 어머니와 영아의 관계는 상호조절(mutual regulation)을 통하여 유지된다. 이 때 양질의 상호성은 배고픔의 신호에 수유로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길과 미소를 주고받는 것, 가슴에 따뜻하게 품어주고 열러주는 것 등을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상호조절이 실패할 때, 일방적인 강요(어머니의 억박지름과 아기의 막무가내)에 의하여 상대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어머니나 영아 모두를 탈진 내지는 무력 상태에 빠지게 한다.¹⁵⁾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의 질은 영아가 자신 및 세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양질의 상호작용은 무엇보다 영아의 욕구에 반응하는 양육자의 민감성에 의해 유지된다. 여기에는 삶의 의미에 대한 양육자의 확고한 자기 확신도 함께 작용한다. 쾌적하고 편안한 상호작용 속에서 영아는 외부 공급자의 한결같음(동일성과 연속성)에 안심하며 믿고 의존하는 것 - 신뢰를 배운다. 또한 생존의 필요에 대처해나가는 자신의 신체기관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신뢰할만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감은 자궁 밖의 세계 곧 인생 역시 살만한 것으로 느껴지게 만드는데 기여한다.¹⁶⁾

이러한 신뢰감이 주는 내적인 힘은 소망이다. 소망이란 욕구좌절로 인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소원의 충족가능성에 대한 끈질긴 믿음이다.¹⁷⁾ 소망이 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즉각적인 욕구충족을 지연시키며 욕구좌절을 견디게 하는 인내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뢰감의 부재, 의지할 수 없다는 절망적 불신은 위축(withdrawal)을 초래하여 자기 안으로 후퇴하게 만든다.¹⁸⁾ 또는 언제 어떻게 겪게 될지도 모를 박탈에 대비하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만든다. 즉 현재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15)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57-61.

16)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63-67.

17) Erik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118.

18) Erik H.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33.

요구하거나, 밖에서 들어오는 것(물질)을 만족의 근원으로 알고, 무분별하게 신뢰한 나머지 '탐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¹⁹⁾

2) 유년기

외부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던 수동적인 영아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근육발달과 더불어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는 자율감을 표현한다. 그러나 의지에 따라 몸의 움직임(붙잡기, 내려놓기, 던지기 등)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능력의 부재로 인해 위기와 동시에 통합과 조절능력을 발달시켜야 하는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 시기에 가해지는 배변훈련을 포함한 엄격한 여타의 훈련들은 이러한 근육통합과 조절을 돕는다. 그러나 유아는 내부에서 치솟는 광포한 충동들을 스스로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어머니의 의지에 순복할 수도 없는 갈등에 처한다. 유아는 어머니와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 속에서 마치 게릴라전을 방불케 하는 의지의 대결 양상을 지낸다. 이 가운데에서 유아는 미움과 사랑, 고집과 협조, 자기표현의 자유와 억제 사이에서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된다.²⁰⁾ 이 위기 속에서 부모는 과잉으로 통제하게 되고, 유아는 그에 대해 막무가내의 고집불통으로 반응한다. 어머니의 짜늘한 거절의 시선에 노출된 유아는 수치감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에 대해 기죽는 자기회의를 경험한다. 자기회회는 외부세상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자기의 의지를 실행함으로써 자신을 지나치게 조종하는 강박성(compulsion)을 초래한다.²¹⁾ 그 결과, 정해진 규칙대로만 하거나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함으로써 자발성이나 융통성, 나아가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는 수치를 면키 위하여 타인의 거부와 인정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자신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과시하려는 헛된 수고를 보이기도 한다. 반대로 수치를 주는 대상을 향한 공격을 통해 자기를 방

19) Donald Capps, *Life Cycle and Pastoral Care*, 문희경 역,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 43-46.

20)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67-73.

21)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78.

어하기 위해 나타나는 분노는 뻔뻔함, 비열함, 잔인함, 교활함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²²⁾

수치감이나 자기회의감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제감을 경험할 때 자율감과 자긍심이 생긴다. 자기통제를 통해 획득하는 내적 힘은 의지라는 덕성이다. 의지(will)란, 피치 못 할 수치와 회의에도 불구하고, 자기억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감행에 있어서 꺾이지 않는 결단이다.²³⁾ 의지라는 덕성이 지니는 내적 강건함은, 선택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을 분별하며, 자유로이 선택한 것(붙잡은 것)에 의지력과 집중력을 발휘하고, 선택치 아니한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놓아버리는)데 자기억제를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아동기

신체발달에 따라 더욱 힘차게 맘껏 움직일 수 있게 되면(4-5세 무렵), 아동의 활동반경은 급진적으로 넓어진다. 이 속에서 목표물들이 탐색범위 안으로 무제한 들어온다. 여기에 언어발달에 의한 상상력이 가세하여, 미지의 목표물의 세계로 '뚫고 들어가려는' 특성인 주도성이 나타난다. 자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존재감('I am a person')을 획득한 아동은 이제는 자신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what kind of person')이 될 수 있는가를 발견해 내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동성의 부모, 성역할, 혹은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동일시를 놀이로 표현하며 힘센 사람, 착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꾼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마치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낀다. 주도성의 표현인 '뚫고 들어가는' 삶의 양식은 타인의 신체나 마음을 겨냥하여 때리거나 욕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또는 이 주도성이 미지의 세계를 향할 때는 호기심이나 모험, 경쟁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주도성은 적절한 한계를 가늠하지 못한다. 이로

22) Capps, *Life Cycle and Pastoral Care*, 46-48.

23)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19.

인한 가해 또는 범법의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처벌환상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침투적 주도성이 분별력을 획득할 때까지, 죄책감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러나 양심이 휘두르는 죄책감을 채찍삼아 분별력을 배워나감으로써 길들여지지 않은 주도성은 순치된다.²⁴⁾

주도성의 순치로 생기는 내적인 힘을 목적(성)이라고 한다. '목적이란, 죄책감이나 처벌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소심(inhibition)해 지지 않고, 가치 있는 목표를 마음에 그리며 추구하는 용기'를 말한다.²⁵⁾ 목적이라는 덕성은 규칙과 절차를 지키며 타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명료화해나가며, 목표가 분명해질수록 더욱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다. 만약 주도성이 한계 안에 머무르며 자족할 줄 모른 채, 획득이나 성취 영역에 있어서 타인의 인격(고유성, 존엄성, 안녕, 감정)을 침해하면서까지 추구될 때, '탐욕'이라는 악덕을 낳는다.²⁶⁾

4) 학령기

이 시기에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 현실세계 적응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숙달을 통한 만족의 경험을 근면감(sense of industry)이라 일컫는다. 근면감은 노작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근면감은 과제 완수의 뿌듯함을 바라보며 이에 필요한 끈질긴 집중력과 지구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때 숙달의 모델이 되는 '잘 아는' 또는 '잘 하는' 사람과의 긍정적 동일시는 근면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 시기의 발달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지식 습득이나 기술 숙달보다 집에서 엄마와 함께 계속 아기로 남고 싶은 소원으로 인해 부적절감(sense of inadequacy)을 느끼거나, 월등한 부모나 친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감(inertia)에 빠지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유아적 소원에

24)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78-84.

25)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22.

26) Capps, *Life Cycle and Pastoral Care*, 48-50.

27)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87-93.

서 말미암는 갈등을 잘 극복한 후, 근면감에 의해 성취되는 내적인 힘을 실력(competence)이라고 한다. 실력이란 '과제를 완수함에 있어서 유아적 열등감에 의해 손상 받지 않고 기민한 솜씨와 지능을 자유자재로 발휘하는 것'이다.²⁸⁾

5) 청년기

사춘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신체적 변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동일성 및 연속성에 대해 - '내가 과연 그 나인가' - 회의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대로 남들도 자신을 그렇게 보아주는지 의심하며,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몰두한다. 이 시기의 과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관점에서 자아 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즉, 과거 이상적 자기모습으로 꿈꾸던 역할들과 기술들을 현재의 자기상과 연결시켜야 한다. 이에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위기와 갈등들과 다시금 고투를 벌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위기는 자신에 대하여 새롭게 다시 정의를 내리는 기회와 도약이 된다. 자아정체감,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동일성과 연속성의 감각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지금까지의 삶의 각 단계에서 축적된 내적 힘들(신뢰감과 소망, 자율감과 의지, 주도감과 목적, 근면감과 실력)이 집결되어 자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자원은 인생의 각 고비마다 미래를 위하여 보람 있는 배움의 단계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확신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확신은 정체혼미(identity confusion)의 불안을 방어하지 않고 감수하며 견디는 힘을 준다.²⁹⁾

정체혼미의 단계에서 모색기(moratorium)를 거치면서 인생의 실존적 의미와 목적을 찾기까지 이념적 탐색과 역할실험 및 도제훈련(apprenticeship)의 과정을 거친다. 정체형성은 충성(fidelity)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바, 충성이란 종교나 철학의 이념적 세계관에 영감과 확신을 얻어 가치체계에 진

28)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24.

29)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94-97.

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다.³⁰⁾

개인의 정체감과 일치되는 세계관은 성인의 세계에 입문하여 그 역할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안내자 구실을 한다. 성인의 세계 속에서 동일시를 통한 '다른 나들' 과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연대성을 경험한다. 연대성 체험은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든다. 그러나 집단적 일치나 획일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전체주의 곧 흑백논리에 의한 배타적 몰입에 빠질 위험이 있다. 전체주의는 '나의 나됨' 을 찾아가는 지속적인 자기갱신의 여정에 방해가 된다. 아울러 이상화된 자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자아팽창 내지는 교만 또한 자아 정체형성의 시기에 무시할 수 없는 함정으로 늘 도사리고 있다.³¹⁾

6) 성인기: 3단계(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청년후기나 성인초기(중년기)에는 전문영역에서의 경력이 시작되고, 이성과의 교제 및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난다. 바야흐로 진정한 '인생' 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 시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적인 친밀(intimacy)을 느낄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인격성장의 과제로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확고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 질수록, 우정이나 사랑 또는 감동을 주고받는 형태로 대인 관계적 친밀감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인격적 교제의 깊이를 나타내는 친밀은 자발성, 따뜻함, 진정성, 상호성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대인관계의 상투성 및 형식성은 친밀감이 결여된 소원함(distanciation)에서 나타난다. 특히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을 성취하지 못할 때, 자신의 내면에 낫선 자기소외마저 초래될 수 있다.³²⁾ 특히 성인초기 부부 사이에 있어서 친밀의 과제는 진정한 연합을 통하여 성취된다. 연합이란 자신의 정체를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 쓰고 서로의 정체를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연합은 자기부정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 결과 연합은 '분

30)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25.

31) Capps, *Life Cycle and Pastoral Care*, 52-54.

32)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100-01.

리된 기능에서 말미암는 적대감을 완화하는 상호헌신', 곧 사랑이라는 덕성으로 열매 맺는다.³³⁾ 그러나 연합 대신 분리와 고립 속에서 이기적 욕망만을 일방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할 때, 자기몰두(self-absorption)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후 성인기 각 단계마다 '어른답게 만드는' 인생과제에 책임 있게 반응하지 못할 때, 자기정체의 확장은 정지되며, 인간의 내적 성장은 침체된다.

장년기는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어버이다움(parenthood)으로 도약하는 시기이다. 장년기의 어버이다움은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타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마한 완숙의 경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한다. 즉, 진정한 권위를 발휘하는 장년은 젊은이들에게 모델이 되어 분별과 통찰 및 이상적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검증된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며, 새로운 이념을 생성해 나간다. 장년기의 '세대 지향적 생산성'(generativity)은 인생여정의 방향성을 잃고 권태, 무의미, 무관심 또는 의무감의 늪에 빠져 침체(stagnation)되는 것으로부터 지켜준다.³⁴⁾ 다음 세대를 향한 '확장된 관심'으로서의 돌봄(caring)³⁵⁾은 장년기 내적 힘(덕성)의 지표가 된다.

노년기는 단 한번뿐인(=이제 더 어찌할 수 없는) 살아온 삶을 수용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짊어지는 통합(integrity)의 과제가 부과되는 시기이다. 정체성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면, 통합은 나를 수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끝이 있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삶의 마감이자 완결이라는 통합의 주제는 이 시기의 삶의 방향감각으로 작용한다. 자기 정체성의 끝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 삶으로부터 자기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절망을 동반한다.³⁶⁾ 절망을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고 평가절하하거나, 완전의 이미지를 독단이나 현학 등으로 고집하는 헛된 노력이 나타날

33)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29.

34)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103.

35)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31.

36)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104-05.

수 있다.³⁷⁾ 절망을 극복하고 통합의 과제를 성취할 때 나타나는 내적인 힘을 지혜라 부른다. 지혜란 '죽음에 직면하여, 삶 그 자체를 초월하는 초연한 관심'으로서 정의된다.³⁸⁾

이상의 인생 시기별 8개축에 위인 심리적 인격적 특성들(①신뢰-불신-위축-탐심-소망, ②자율감-수치/자기회의-강박성-의지, ③주도성-죄책감-소심-탐욕-목적, ④근면감-부적절감-열등감-무능감-실력, ⑤정체감-정체혼미-교만-충성, ⑥친밀감-고립/자기몰두-사랑, ⑦생산성-침체-돌봄, ⑧통합-절망-독단-지혜)은 발달 단계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한 시기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점성원리가 가정하는 바, 상기 8개축은 전 생애동안 지속된다. 다만 결정적 시기에 어느 한 축이 절실하게 부각될 뿐이다. 예를 들면, 신뢰와 불신의 축(①)에 켜어진 심리적 인격적 특성들은 그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에 원형의 형태로 가장 절실하게 경험될 뿐,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고 발전한다. 영아기 신뢰와 소망은 청년기 정체감 형성기에는 '시간조망'의 역량으로 무르익어 나타난다. 또는 청년기에 나타나는 정체감의 짝은 유아기에 벌써 '자신이 되려는 의지' (내꺼야, 싫어, 아니야)로 나타난다. 한편, 청년기에 보이는 '지도력'은 장년기에 이르면 세대 지향적 생산성과 배려로 꽃피우게 될 봉오리가 된다. 반면 청년기 '자의식'은 유년기 '자기회의'의 연장선에서 나타날 수 있다.³⁹⁾ 이처럼 8개축들은 각각의 심리적 인격적 특성들과 함께 각 인생시기의 요구에 맞추어 조금씩 다른 뉘앙스를 지닌, 다른 용어로 표현될 뿐 늘 내재한다.

따라서 성장과정 중 경험한 각 축의 부정적인 특성들-불신, 위축, 탐심, 수치, 자기회의, 강박성, 자기억제, 죄책감, 소심, 탐욕, 열등감, 무능감, 정체혼미, 자기소외, 고립, 침체, 권태, 무의미, 절망 등-의 상처들 또한 정성원리에 의하면, 각 인생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극복될 가능성을 지닌

37) Erikson, *The Life Cycle Completed*, 64-65.

38)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133.

39) Erik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94.

다. 예를 들면, 유년기 자기회하는 청년기의 지나친 자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유될 수 있다.

거듭난 심령의 성장 좌표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자연적 성장과정에 내재된 온갖 위기를 겪으셨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작용으로 심령의 강함을 유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도 발달의 위기가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롬8:37). 인생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왜곡되거나 부패되거나 약해지는 대신, 심령의 강함과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도록 도우신다.

5. 은혜에 의한 심령의 성장 질서

인간의 자연적 성장과정에 은혜는 어떻게 작용하며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1) William W. Meissner의 은혜-자연의 연속성 논리와 (2) James E. Loder의 이중부정에 의한 질적 변형의 논리를 개괄해 보고자한다. 이 두 이론 모두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연본성(=인성)의 발달에 새로운 잠재 가능성을 부여하고 개발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온전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전 생애에 걸친 인성발달 구도 속에서 초월적 은혜가 나타내는 효력을 규명하고 있지만, 은혜가 작용하는 효력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1) William W. Meissner의 입장: 은혜의 내적 선물들

초월적 은혜와 자연적 인성발달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Meissner는 은혜를 자연 덕성을 온전케 하는 내적 선물로 보고 있다. 은혜의 작용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생 시기별 성장 위기에 맞추어진 내적인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내적 은사들에 의해 심리적 상처와 인격적 약점이 회복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Meissner가 제시한 내적 은사들은 Erikson의 인성발달의 기본구도인 8개 축에 맞추어져 순서대로 구성된 것으로, ①믿음과 소망, ②회개, ③자기훈련,

④견인, ⑤겸손, ⑥이웃사랑, ⑦섬김과 열심, ⑧자비 등으로 구성된다.⁴⁰⁾ 8가지 내적 은사들이 발휘하는 효력은 인생시기별 8개축의 위기와 병행하여 설명되고 있다.

믿음과 소망의 은혜는 영아기 축(신뢰-불신-위축-소망)과 관련된 자연 본성의 성장에 효력을 발휘한다. 믿음(faith)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섭리적 인도하심을 받아들여려는 의지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재에 눈뜨게 한다. 이러한 믿음에서 오는 확신과 신뢰로, 이성의 안전지대에서 믿음의 어두운 심연으로 자신을 내어던질 수 있게 된다. 믿음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께 이끌리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화에 눈뜨게 되며, 자신에게 다가온 대상인 하나님에 의해 수용되며 거절당하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믿음은 인간의 심령을 열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을 그 구조 속에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령의 개방성은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곧 신뢰를 유도한다. (“Faith induces trust.”)⁴¹⁾

소망(hope)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김으로서 약속된 상급을 확신하는 힘이다. 하나님께서 영적 요구와 갈망에 반응하시리라는 신뢰로 어린아이와 같이 의지하며 아뢰고 응답받음으로써 소망은 더욱 강화된다.⁴²⁾ 이는 배고프거나 고통당할 때마다 어머니로부터 고통 해소와 만족과 위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만으로도 소원충족과 고통해소의 기대가 강화되는 경험과 유사하다. 지금 바라는 것들을 이미 획득된 실상으로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은, 고통으로 위축당하거나 탐욕으로 방어하는 대신, 고통을 견디고 버티나가는 인내로 작용한다.

회개(contrition, conversion)의 은혜는 유아기 축(자율-수치-자기회의-강박성-의지)과 의미상 병행하여 작용한다. 회개의 은혜는 인간을 하나님

40) Meissner, *Life and Faith*, 63.

41) Meissner, *Life and Faith*, 65-66.

42) Meissner, *Life and Faith*, 67.

앞에 홀로 마주하게 하며, 결단과 책임으로 인생에 반응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율성을 영적 도덕적 존엄성의 근거로서 깨닫게 하여, 오히려 자신의 열등함과 못남을 겸손하게 직면하고 과감히 고쳐나갈 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비로소 자신을 숨기려는 수치나, 책임질 것을 두려워하는 우유부단함의 자기회피는 물러나게 된다.⁴³⁾

자기훈련(penance, self-discipline)의 은혜는 아동기 축(주도성-죄책감-소심-탐욕-목적)에 의미상 대응되어 효력이 작용한다. 자기훈련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를 방해하는 힘과 직면하여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도록 돕는다.⁴⁴⁾ 영적으로 개발된 주도성에 의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아울러 자기훈련의 은혜에 의하여 천방지축의 충동성이 순치되고 통제된 결과, 절제(temperance)의 성품으로 나타난다. 혹, 충동에 대한 통제가 실패하더라도 지나친 죄책감과 자기처벌로 가는 대신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

견인(fortitude)의 은혜는 학령기 축(근면감-부적절감-열등감-무능감-실력)과 관련된 자연본성의 성장에 작용한다. 견인의 은혜는 난관(경쟁, 실패, 미숙의 두려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는 노력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불변의 노력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은 심령의 '구조적' 강건함에 대한 증거가 된다.⁴⁵⁾

겸손(humility)의 은혜는 청년기 축(정체감-정체혼미-교만-충성)과 관련된 자연본성의 성장에 작용한다. 겸손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로서의 자기를 앞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고 의존하는 심령 상태이다. 반면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고 자기를 높임으로써 하나님과의 공허한 관계를 보상하려는 상태인 교만(pride)과 대조된다. 정체성 관점에서 볼 때, 교만은 정체혼미에 내재된 불안과 공허를 방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겸손은 영적 정체성의 핵심 차원으로 심리적 정체감 형성

43) Meissner, *Life and Faith*, 69.

44) Meissner, *Life and Faith*, 71.

45) Meissner, *Life and Faith*, 73-74.

에 근거를 제공한다.⁴⁶⁾

이웃사랑의 은혜는 성인기 축(친밀감-고립/자기몰두-소원함-연합-헌신-사랑)의 인성발달에 있어서 힘을 부여한다.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 깊어지고 강화된 겸손이라고 볼 수 있다. 사랑은 인간이 자기 내부의 통제 문제를 완수한 후, 이제 그 여력을 외부로 확장하는 경지이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이웃사랑의 은혜는 친밀감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립과 자기소외를 낳는 이기적 자기몰두를 억제한다. 섬김과 열심의 은혜는 장년기 축(생산성-침체-돌봄)의 인성발달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준다. 다음 세대를 향한 열심과 섬김의 은혜는 타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목표로 나아가게 한다. 자기 자신의 내적 풍성함과 온전함을 오히려 이차적이 되어 버리며, 섬김의 부차적 산물이 된다. 자기를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얻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고, 줌으로써 받는 영적 역설이 시작된다. 드디어 자비의 은혜는 노년기 축(통합-절망-독단-지혜)을 따라 총체적 인성발달을 완성하는 힘을 부여한다.⁴⁷⁾

인성 발달의 위기 속에서 갈등해결 및 성장을 도우시는 은혜의 내적 선물들(믿음과 소망, 회개, 자기훈련, 견인, 겸손, 이웃사랑, 섬김과 열심, 자비)은 모두 거듭난 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격적 특성을 갖추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인간의 영적 성장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온갖 위기 속에서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하여 왜곡되거나 부패되거나 약해지지 않고, 지혜와 사랑에 있어서 자라가셨다. 따라서 인성발달의 8개축의 주제들과 병행하여 기술된 그리스도의 성품들은 거듭난 사람의 내적 성장의 이정표로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James E. Loder의 입장: 영의 논리

Loder는 초월적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 자연적 덕성을 부정함(negation)으

46) Meissner, *Life and Faith*, 75-76.

47) Meissner, *Life and Faith*, 76-83.

로써 얻어지는 '질적' 변형(transformation)을 심령성장의 핵심과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고 Loder의 입장이 자연적 덕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Loder의 부정은 인간이 인생의 허무와 절망을 짐짓 '부정' 함으로써 애써 성취한 자연덕성을 '부정'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정의 부정' 이라는 이중부정은 더 큰 긍정, 곧 자연적 덕성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통합되는 바, 변화의 역동의 핵심을 이룬다.⁴⁸⁾

Loder는 인간의 본질을 영(spirit)으로 파악하고, 심령의 발달을 영의 논리로 풀어낸다.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영은 자기를 넘어서서 궁극적인 것을 향해 열려져 있다. 자기초월과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인간은 변형의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혼돈 속에서도 질서를 향하여 끊임없이 탐색하는 인간의 영은 그 자체의 논리와 구조를 생성시킨다.⁴⁹⁾

인간의 영이 아무리 자기초월과 궁극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자율적 힘에 의해서는 이에 도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은 자신 안에 궁극적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궁극적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인간의 영이 목적과 의미('산다는 게 무엇이냐'), 방향과 가치('무엇을 위하여 사느냐')에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the Spirit)과 연결되어야 한다. 창조주의 인격적인 영만이 인간의 영으로 하여금 공허와 허무의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팽창, 자기회의, 자기몰두에서부터(from) 해방시킨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for) 자유를 만들어 낸다.⁵⁰⁾

Loder에게 있어서 인간발달연구는 따라서 전 생애에 걸친 경험을 자료로 인간의 영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Loder는 인성발달에 있어서 두 축을 상정하는 바, 하나는 생존과 적응을 위한 자아발달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의미와 목적에 대한 영적 발달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인간의 영이 그 목표와 의미를 찾아가는 성장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즉

48)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81-95, 110, 140.

49)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9-10.

50)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10-11, 15.

자아발달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부정 및 허무의 심연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은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⁵¹⁾

하나님의 영의 사역, 곧 성령의 은혜의 효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Loder는 부정(negation)의 주제를 출생 경험에서부터 끌어들이고 있다. 출생은 인생 최초의 가장 큰 전환의 순간으로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구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생 최대의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출생의 외상(trauma)은 전 생애에 부정의 심리적 그림자를 드리운다. 부정은 분열과 절망, 생명 수여자에 대한 거부와 공격, 극단적으로는 새로운 탄생에 대한 소원으로 궁극적 퇴행인 죽음을 선택하는 시도인 자살과도 연결된다.⁵²⁾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의 영은 본능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여 공격성을 '취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삶을 뚫고 나아가려는 의지로 '변화' 시킨다.⁵³⁾ 이러한 개방성은 양육자를 향하여 얼굴과 눈을 맞추며 그 실재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존할 수 없는 얼굴의 사라짐 속에서 분리는 거절로 경험되며, 거절에 대한 방어로 '거리유지'를 위한 부정('안 돼, 아니야, 싫어')이 사용된다. 부정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만들어 안전한 내적 공간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동시에 주관으로부터 분리된, 객관적 세계를 분별하고 파악해 나가는 기초가 된다. 외부 세계에 적응을 목표로 하는 자아발달은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no"의 기초 위에 성립한다. 그러나 부정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 하는 바, 얼굴에 대한 깊은 갈망을 완전히 묻어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은 인간의 영과 더불어, 남은 생애 동안 청년기와 성인기에 걸쳐 부정이 지닌 영향력의 독소를 해독하고, 자아와 그 방어기제들을 변화시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돕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영을 상존하는 영원한 얼굴과의 대면으로,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한다.⁵⁴⁾

51)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12.

52)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81-83.

53)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85-86.

54)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92-95.

유아기 자율과 수치의 갈등은 자유의 근원과 연관된다. 하나님의 영원한 “yes”의 은혜에 힘입어서만, 부정에서 연유한 ‘나’는 수용된다.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나’는 ‘나이되 내가 아닌 그리스도(“I-not I-but Christ”)’의 정체성을 지닌다. 이에 힘입어, 자아발달에 사용된 부정의 그림자인 수치와 죄책감의 쓰는 힘은 무효화된다. 이 시기의 발달의 주제가 되는 선택의 자유는 허무에 맞서 싸우면서 자아의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김으로 자율적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 및 타인을 통제하기 위한 자유가 아닌, 은혜 안에서 창조주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되돌려 받는다.⁵⁵⁾

아동기 미지의 세계로 침투하고자 하는 주도성은 죽음과 무의 세계로까지 나아간다. 미지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간의 영은 자기를 넘어선 타자를 추구한다. 이에 성령의 은혜는 궁극적 의미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게 하며, 인간의 영을 죽음과 허무의 바닥으로까지 내려가게 하심으로써, 무에서 창조하시듯, 새사람을 재창조하신다.⁵⁶⁾

학령기 근면성과 열등감의 발달주제는 일과 관련된 가치평가와 관련된다. 목적과 수단의 통합, 객관적 현실과 주관적 의미의 통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가치기준을 새롭게 조정하도록 작용한다. 즉, 일 그 자체의 효율적 성취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더 큰 비중을 두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형태로의 성취개념은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일의 본래적 의미로 회복됨을 뜻한다. 그 결과, 과업성취가 존재가치보다 우위에 있을 때 나타나는 열등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일에 대한 중독성 및 강박성의 독기가 해독된다.⁵⁷⁾

청년기는 격동의 정체혼란 속에서 자아의 전체 구조가 재점검되는 시기이다. 자아경계가 열리어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는 지금

55)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143-147.

56)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168-170.

57)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173-175, 182-183.

까지 자아기능으로 유지해 왔던 통제의 이면에 있는 것들, 즉 양심의 가책이나 소외에 대한 두려움 및 열등감을 의식표면으로 떠올린다. 또한 '얼굴'과의 분리로 인해 버려진 느낌, 얼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독감과 허무감을 통하여 인간의 실존을 조명한다. 여기서 죄,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이 때 지금까지의 자아발달의 역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일어난다. 그 결과, 자아의 근거가 무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자아중심적인 이상들을 소멸시키는 작업이 성령의 은혜로 일어난다. 그리하여 죽음과 무에 직면해서도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삶의 의미와 목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결단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 문제는 죽음 앞에서의 존재의 의미 문제를 다루는 통합성 과제와 일치한다.⁵⁸⁾ 이 점에서 Loder는 성령의 변형 논리는 Erikson의 자아발달에 있어서 객관적 시간개념에 따르는 점성원리를 넘어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성인기의 친밀감, 생산성 및 통합성의 과제는 성령의 권능에 의한 궁극적인 변형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강력한 친밀감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얼굴, 곧 임재를 갈구하는 소원의 만족으로 인한 친밀감은 심리적 친밀감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일어난다. 성령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알아감에 따라, 부정 위에 기초한 자아방어를 내려놓고 친밀감을 향하여 자유롭게 나아가게 된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심령을 전적으로 집중시킬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 즉, 자유가 질식당할 것 같던 몰두의 위협, 또는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는 유기의 공포는 더 이상 사랑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식되거나 버림받을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속해 버렸기 때문이다.⁵⁹⁾ Erikson이 제기한 인간관계에서의 친밀의 발달과제를 Loder는 하나님

58)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240-241, 244-247.

59)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264-267.

과의 관계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그 근본적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는 자아발달 수준에 따라 그 깊이를 달리하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발달의 깊이를 유도한다.

장년기는 인생의 정점에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남은 시간을 세며, 자아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또 다른 전환기이다. 더 이상 도약할 수 없게 만드는 의무와 타성의 짐체를 뚫고, 미래를 향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내적 자원을 끌어내어야만 한다. 이러한 생산성의 과제가 Erikson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는 반면, Loder에게서는 자아의 심층을 향하고 있다. Loder는 Carl G. Jung의 분석심리학을 이용하여 무의식으로의 내면여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내적 성장의 목표설정에서, '대극의 합일'에 의한 구조적 온전성(wholeness)을 성령에 의한 거룩성(holiness)에 종속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통합성은 인간이 홀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된다. 한 개인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으며, 일상적인 평범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적 표현임을 깊이 깨달아감으로써만 인간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통합성에 이르게 됨을 강조한다.⁶⁰⁾

이상 Meissner의 이론과 Loder의 이론을 정리해볼 때, Meissner에게 있어서 은혜는 성령의 성품적 은사들로서 인성의 자연발달에 있어서 방향과 목표와 '도우시는' 힘으로 작용 한다. 반면, Loder에게 있어서 은혜는 이중부정으로서, '뒤집는' 영의 역사로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Loder는 자아발달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부정 및 허무의 심연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작용을 은혜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 이룩한 덕성은 비록 이 땅에서는 유능하고 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무의미하며 허무할 뿐인 인간 실존의 밑바닥을 보여준다. 오로지 은혜 안에서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의 연결을 통하여 궁극적 근원과 잇닿을 때에만, 인간의 발달과 성장이 참된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인간의 영혼은 참

60) Loder, *The Logic of the Spirit*, 286-287, 293, 302, 307-308, 326.

으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조명된 자아의 정체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는 과정이 어떻게 청년기 이후 죽음에 직면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내적 성장 여정에 있어서 핵심중추가 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III. 닫는 글

지금까지 거듭난 심령의 은혜 안에서의 성장 질서를 Erikson의 전 생애에 걸친 인성 발달론의 구도 속에서 Meissner의 이론 및 Loder의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1)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에 심리적인 것,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이 인생여정의 성장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함께 엮여져 갈 수 있는지 (2) 인생 시기별로 부딪치는 내적 위기 속에서 삶의 과제를 회피하거나 외면할 때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삶의 과제에 책임 있게 반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3) 삶의 시기별 성장위기 속에서 인간의 내적 반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힘입어야 할 은혜의 내용, 그리고 이 은혜로 인한 삶의 내적 열매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끝으로, 본고에서 개괄한 내적 성장의 질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안내도의 구실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 각자가 숨어있는 영적 자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백함으로써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김수연.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 막힌 담, 그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창간호(2003).
- Berkoff, Louis. *Introduction to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 이상원 공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Capps, Donald. *Life Cycle and Pastoral Care*. 문희경 역.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
- Erikson, Erik H.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1959(1980).
- Erikson, Erik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 Erikson, Erik H.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 Erikson, Erik H.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1985.
- Geldenhuis, Norval.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Luke Vol. 1. 이장립 역. 『성경주석 뉴인터내셔널: 누가복음(상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3.
- Hoekema, Anthony A. *Saved by Grace*. 류호준 역. 『개혁주의 구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 Loder, James E. *The Logic of the Spirit: Human Development in Theological Persp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 Louw, Daniel J. *A Mature Faith*, Leuven in Belgium: Peeters, 1999.
- Meissner, William W. S. J., *Life and Faith: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Religious Experienc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87.
- Meissner, William W. S.J., *Foundations for a Psychology of Grace*. New Jersey: Paulist Press, 1966.
- Watson, Thomas *A Body of Divinity*. 이훈영 역, 『신학의 체계』.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Abstract 】

A Psychology of Grace: Dynamics of Spiritual Growth

Sue Yeon Kim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e spiritual growth is outlined in context of personality development in the whole life span. W. Meissner's view on grace as personality trait and J. Loder's double negation as the logic of spirit are reviewed in the framework of E. Erikson's personality developmental theory. Themes on the spiritual growth are structured in terms of personality developmental crisis, its overcoming processes, pathologies, dynamics of helping grace and its fruits. The map of internal growth in the whole life span might hopefully function as a guide to praying for the Grace by confessing where we are when God asks "where are you?"

Key words: integrated spirituality, nature and transcendence, epigenetic principle, grace as personality traits, double negation as logic of spirit.